

투데이 칼럼

김정은 정권 10년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지난해 12월 30일로 꼭 10년이 됐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북한은 어떤 변화를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6개의 직함으로 바뀌었다.

27살에 옛된 얼굴의 청년은 이제 집권 10년 만에 수령 반열에까지 올랐다.

이제는 선대 후관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통치에 자신감이 있다는 분위기다. 그는 통치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한다는 걸 증명했다. 사회주의 유일 수령 사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공포정치"였다. 공포정치의 정점은 이북형 김정남 암살이었다. 혈육까지 제거한 것은 그만큼 권력에 대한 불안함이 컸던 것이다.

공포정치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그의 통치술은 신상필벌 주의가 아주 엄격하다.

고위 간부라도 당과 국가에 손해 되는 행위를 하면 과감하게 계급을 강등시킨다.



정복규
논설위원

아예 협박에서 내쫓기도 한다. 반면 하위 간부라도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면 과감하게 발탁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양봉음위(陽奉陰違)란 말이 있다.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한다는 의미다. 일하는 척, 복종하는 척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 동안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분야는 "핵무력 완성"이다. 그 동안 핵실험 4차례, 미사일 발사 총 62차례다.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 핵 무력은 대내 통치와 국제 외교에 유일하게 믿음직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협상력 제고의 유력한 수단으로 판단한다.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인식이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핵

실험도 할 수 있고 미사일 실험도 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핵을 지렛대로 삼았던 외교 담판은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10년을 결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의 "세기의 담판" 협상에 실패해서 대북제재 완화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높아졌다. 핵 보유를 통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강대국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북미간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올해도 기 싸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인민생활 향상"이다. 김정은 정치의 핵심은 인민 대중 제일주의다. 주민 생활 향상이 안 되면 수령

의 반열에 올라도 인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렵다.

대북제재 완화도 어렵고 코로나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오직 국내자원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고 자력갱생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핵도 중요하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인 과제는 인민 생활 향상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1순위 과제이다. 그러나 자력갱생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답은 간단하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서 논에 뿌리면 식량생산량이 늘어난다. 북한은 현재 사상 통째 내부 단속이 심각하다. 이른바 "청년교양보장"이다.

북한 청년들에게 남한의 문화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인다. 경제도 여러모로 젊은 MZ세대들이 남측 문화에 빠지면 공화국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동사상문화 배경법' 혹은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만들어 사상 단속을 한다. 그러나 청년 세대들은 USB, SD카드, T카드 등 다양한 콘텐츠 저장 수단들을 이용하면서 서 외부 문화에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 청년들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물질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높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설

학교폭력 갈등조정위원의 과제

일선 학교 폭력이 여전하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2022년 회복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이는 교육공동체 간 발생한 갈등이나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기존 처벌 위주의 응징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이 함께 학교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고 재통합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공감적 의사소통과 비폭력 대화로 회복적 관계를 맺는 활동이 중요하다. 갈등 현상은 학교 뿐 아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갈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번져 있다. 갈등(葛藤)이란 서로 생각이나 처지 등이 달라서 맞바딤치는 것을 말한다.

갈등(葛藤)의 '갈(葛)'은 '회갈', '등(藤)'은 '등나무' 등이다. 회갈과 등나무가 같은 나무에 감아 올라가게 되면 회갈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긴다.

갈등은 이와 같이 하나만 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힌 모습에서 생겨난 말이다.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상황, 또는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는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킨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서로 중첩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갈등 당사자들은 서로 간의 차이나 불일치를 인식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갈등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 전북교육청 '회복조정지원단'의 역할을 기대한다.

비리로 얼룩진 어느 지자체

최근 전북 도내 어느 지자체 인팍 상황이 매우 어수선하다. 이미 전라북도 감사에서 여러 건의 시정 비리가 적발됐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자체 장에 대한 소환을 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해당 지자체를 압수 수색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특정 부서들과 지자체장 방까지 압수 수색 대상이 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지자체 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이 이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리 의혹의 정점에 지자체장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해졌다. 현재 사건 관계인들은 소환조사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장을 향한 검찰 수사는 이미 터져 나온 각종 비리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드러난 공무원 채용 비리는 매우 심각했다.

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고, 종합 순위 1등이 불합격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은 횡행하게도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특혜와 불법 비리 의혹도 가볍지 않다. 지역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피하도록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4여 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억 원이 넘는 어느 교량 공사는 건설업 면허도 없는 업체한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 나같이 실무진들의 업무 소홀로 빚어졌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로 가능했겠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배일에 싸인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명명백백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메타버스 구현 '생명의 나무' 존 체험하는 관람객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2의 SK텔레콤 전시관에서 메타버스 렌더링으로 구현한 '생명의 나무' 존을 체험하고 있다.

의회 난입 1주년 맞아 트럼프 비난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스태추어리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충성하는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를 미국 민주주의의 목에 칼을 겨는 '무장 반란'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